십자가의 길 기도의 유래

사순시기 동안 교우들의 신심행사 중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, 즉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이다. 고통의 길이라고도 하는 십자가의 길은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실제로 빌라도 관저에서 갈바리아 산까지 걸으면서 기도 드렸던 데서 유래한다. 전설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께서도 예수 승천 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자주 걸으셨다고 한다.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자주 이 길을 찾아 그분을 생각하고, 흠모하며, 눈물로써 기도하였다고 한다. 이처럼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나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.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4-5 세기 경부터이다.

1342 년 프란치스코회가 성지에 대한 관리를 맡으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하나의 신심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. 그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 장소들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들 사명의 한 부분으로 여겼으며, 이에 따라 더욱 대중화된 이 신심은 십자가의 길 각 처에 대한 신심에서 잘 표현되었다. 그리고 예루살렘 순례지가 지리적, 정치적인 장애를 받게 되자 유럽에서는 성지 모형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다. 이 신심은 먼저 세계 곳곳에 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원들과 그 수도원의 성당들에서 일반화되었고, 이런 곳에서부터 근처 성당으로 확산되었다.

구산 성지

배티 성지

수리산 성지

죽산 성지

15-6 세기에는 각 처의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으나, 1637 년에 이르러서는 교황청에 의해 오늘날처럼 되기 시작하였다. 1731 년 교황 클레멘스 12 세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고, 처의 숫자도 14 처로 고정시켰다. 19 세기에 이르러 이 신심은 전세계에 퍼져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기도로서 특별히 사순시기에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, 성당이나 그 밖의 공적인 기도 장소에서도 개별적으로 혹은 사제와 함께 공동으로 행해지고 있다.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길은 14 처로 구성되어 있지만,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15 처를 추가하기도 하였다. 1975 년 교황 바오로 6 세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끝을 맺는 이런 형태의 십자가의 길을 승인하였다.

십자가의 신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신심이다.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틀이 아니라 각 처가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난 사건들을 통해 이끌어내는 기도와 묵상이다.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기념하고,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, 그로써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중림동 성당

새남터 성지

합덕 성당

당고개 성지